



포스코, 2년치 임금 일괄 타결

포스코 노사가 14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2010년과 2011년 임금인상을 일괄타결하고 상생을 다짐하고 있다. 노사는 2010년 기본임금을 3%, 2011년은 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포스코 제공>

광주·전남 청년실업 23000명

6월 취업자 광주 2.2% ↑·전남 4.5% ↓

경기회복 영향으로 지난 6월 전국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지만 청년 실업률은 8.3%까지 치솟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역도 취업자수가 증가한 반면 청년실업도 크게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2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1만4000명이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3.5%로 석 달째 3%대에 머무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국의 청년 실업률은 5월의 6.4%에서 6월에는 8.3%로 경증 튀고 고용률도 40%에 턱걸이하는 등 청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은 지속됐다.

광주의 취업자는 67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2%(1만5000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58.1%로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5~29세 사이 청년실업자 수가 2·4분기 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명)보다 6000명(57.6%)이 증가해 청년층의 구직난을 반영했다. 특히 2·4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11.6%로 지난해 같은 분기(6.3%)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지역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3·4분기 6.3%, 지난해 4·4분기 7.5%, 올해 3%대에 머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공공행정 등 공공부문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감소하고 기업들의 청년층 신규채용이 정체되면서 방향을 잃

두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지역은 취업자수가 줄고 실업자는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89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만3000명(-4.5%) 감소했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수는 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34.5%)이나 증가했다. 청년층의 경우 실업자수가 올 2·4분기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5000명)보다 2000명(40.0%)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7.4%로 지난해 같은 분기(4.9%)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으로 청년층의 취업난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윤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아차, 2·3차 협력사도 챙긴다

광주권 250여곳 대상 ... 품질·기술 지도

현금 결제·대출 지원 ... 자녀 어학연수도

현대·기아차가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업체까지도 직접 챙긴다.

14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1차 협력업체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2달간 광주권을 비롯해 2차 협력업체 1200여개사를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권 협력업체는 1차 50여 곳, 2차 100여 곳 등 250여 곳에 달한다.

이처럼 현대·기아차가 협력업체 챙기기에 나선 것은 도요타 리콜 사

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 때문이다. 자동차는 2만개가 넘는 부품들의 조합으로 이뤄진 만큼 핵심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꼼꼼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구조는 3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기초부품을 납품하면, 2차 업체는 1차 협력업체에 이를 가공해 납품하게 된다. 1차 협력업체는 현대·기아차와 모비스 등에 완성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있다.

현대·기아차는 2·3차 협력업체에 대해 자금 지원과 납품대금의 현금 지급, 품질·기술 지도,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운영자금 대출과 상생협력펀드의 지원 대상을 2차 협력업체로 확대하고, 지식경제부·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2·3차 협력사에 대한 납품대금의 현금 결제, 3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도 간접 지원할 방침이다.

품질·기술 지도도 적극 펼친다. 2차 협력업체에 5~7개월간 봉사단을 상주시켜 무상으로 품질·기술 애로사항을 중점 지도하고, 부품산업 데이터베이스 운영, 학술 세미나도 연다. 또 협력업체 지원단을 파견해 2차 협력사의 경영관리도 도울 방침이다.

공장·품질관리 기법 등 협력사 직원교육 과정과 현장인력 양성 기술학교도 운영한다.

협력사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공장 교육과 어학 연수, 자녀 영어교실, 미래경영자 세미나도 실시한다.

아울러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1·2차 협력사간 우수 상생협력사례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경영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2차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해 뿌리산업에 집중 육성하는 등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 막걸리 업체 '몽쳤다'

해남 옥천주조 등 전국 22개사 창립 총회

중소 막걸리 제조업체들의 이

익단체가 출범했다. 해남 옥천주조를 비롯한 전국의 22개 중소 막걸리제조업체 대표들은 13일 울림파크호텔에서 한국막걸리제조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는 하명희 이동주조 대표가, 사무국장에는 박성기 ㈜우리술 대표가 선임됐다. 전남지역 대표 제조사는 해남 옥천주조, 경기도는 배례정누룩도가, 강원도 양양주조, 충청도 세종탁주, 경상도 영

천 것바위가 각각 선정됐다.

협회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전국 규모의 막걸리 제조사 회의를 열어 지역 막걸리업체 간의 협력 방안과 중소 막걸리 제조업체의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성기 대표는 올 들어 막걸리 생산·소비량이 작년 대비 40% 증가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막걸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드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협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일유업 '바리스타 스톱키'

7만8600개 개발적 회수

매일유업(대표 최동욱)은 14일 최근 생산된 컵커피 음료 '바리스타 스톱키'(250ml)를 자발적으로 회수(리콜)한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청양공장서 생산한 '바리스타 스톱키' 일부 제품이 포장용기 살균 부족으로 변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통기한이 8월 27일과 29일자인 제품 7만8600개를 회수하기로 했다.

매일유업은 공장에 보관 중인 제품 5460개를 출고 중지하고 대리점 등을 통해 납품된 출고량 3만여 개를 수거했으며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을 수거하고 있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고객상담실(02-2127-2215~7)로 연락하면 즉각 교환받을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상반기 100만대 돌파 노조 간부 외유 반발 확산

사상 첫 ... 작년비 34% ↑

국내 시장 1위를 넘보는 기아자동차가 올 상반기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 100만대를 돌파했다. 반기 사상으로는 최초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기아차는 총 100만4724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한 74만9328대보다 34.1%, 하반기 90만2592대보다 11.3%가 늘어난 수치다. 기아차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판매 목표량인 194만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곳은 전남지역으로 총 6만1721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6%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6월 말까지 약 17만1000대를 생산했다. 차종별 생산량은 스포티지 6만8000여대로 가장 많았고, 봉고트럭 4만4000여대, 스포티지R(스포티지 포함) 3만8000여대, 카렌스 2만여대 등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관련자 징계위 회부 촉구

기아자동차 노조 지도부 일부 간부들의 부적절한 외유를 비판하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 화성지회 대의원 34명은 최근 공식 홍보물을 통해 지도부의 '일본 외유' 사건을 도덕 불감증으로 규정하고 해당 간부들의 징계위 회부와 집행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기아차 노조 화성지회 수석부지회장 등 일부 간부들은 지난해 화성공장 직원의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이주

대병원 부담으로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이에 대해 화성지회 대의원 34명은 "이번 출장은 집담회 참석을 가장한 외유성 관공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지도부는 탄로날 일에 대해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주대병원은 기아차 노조와 이해관계가 있어 뇌물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므로 거절했어야 했다"며 "해명 과정에서 거짓으로 덮으려 한 행위는 집행부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주조·금형·용접 名匠도 기능 장려금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의 명장(名匠)들은 앞으로 체육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수준의 기능 장려금을 받게 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4일 지경부 다산실에서 가진 '뿌리산업 명장과의 간담회'에서 '용접 명장' 김후진(두산DST 근무·52)씨 등 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또 대를 잇는 뿌리산업

명가 발굴 및 지원, 한·일 뿌리산업 엑스포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보여준 독일의 놀라운 경제성장 뒤에는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마이스터 정신이 있었다"면서 "장인이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더욱 강력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758.01 (+22.93)
▲ 코스닥지수	499.97 (+2.18)
▲ 금리 (국고채 3년)	3.98% (+0.02)
▲ 원·달러 환율	1,202.50원 (-10.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무등빌딩 임대

무등산이 내려다 보이는 최합격 최따끈과
주변의 교통지리,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리면서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며
최저의 임대료로 고품격 관리한 지역을 찾아 임대합니다.
임대처에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이 곳에서는 중앙 공급식 냉 난방시설을 지원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명] [주요시설] [주요시설] [주요시설]

문의처: [주요시설] [주요시설] [주요시설]

임대문의 0621222-0527